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기부천사’ 문근영 시골 공부방 살렸다

지난해 10월 21일 해남군 송지면 송종리 ‘땅끝공부방’에 40대 여성이 찾아왔다. 양손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피자 열 판이 들려있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 여성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적당한 땅을 찾아 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 그녀는 직접 부동산업자와 함께 땅 끝마을을 찾아 공부방 인근 500여평 (시가 7천500만원)의 땅을 매입했다.

이 공부방은 선교사인 배오섭(51)씨 부부가 결혼과정 등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해왔다. 이곳에선 40여명의 어려운 처지의 농촌 학생들 이 방과 후 공부방을 함께 했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속삭이까지 해결해 왔다.

그러나 집 주인이 건물 매각 결정을 하면서 학생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공부방도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처했다. 이 딱한 소식은 광주주요 10월 19일자에 실렸고 40

대 여성은 기사를 보고 해남 공부방을 찾은 것이다.

배씨 부부는 이를 모를 여성의 아름다운 기부에 몸뚱 바를 몰랐지만, 정작 그녀는 자신을 밝히지 않았다. 배씨 부부는 토지 등기를 하면서야 ‘문근영’이라는 이름을

에서 부딪혔다. 류씨는 또 아이들의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배씨의 1t 화물트럭이 낡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500만원을 지정 기탁, 차를 바꿔주기도 했다.

류씨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근영이와 함께 땅끝공부방이 사라지게 됐다는 보도를 보고 돕기로 마음먹었다. 근영이는 ‘이 곳 아이들이 올바르게 컸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단을 위기 ‘땅끝 공부방’ 3억 들여 건물·차량 ‘선물’ “아이들 행복한 공간 되길”



배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준 근영 양 가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감사했다. ‘기부 천사’ 문근영이 땅끝마을 아이들에게 또 한 번 큰 사랑을 전한 것이다.

광주국제고 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재학중인 문근영은 최근 모 이동통신 광고에서 부른 노래의 수익금을 전액 복지에 기부하기도 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산불 건조한 날씨 속에 겨울 가뭄이 계속되면서 산불 비상이 걸렸다. 25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무등산 덕산골에서 산불이 나자 소방헬기가 출동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오후 화순군 남면 아산에서도 불이나 박모(68)씨가 숨졌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흡연-폐암 직접 연관없다”

7년 끈 ‘담배소송’ 원고 패소... 즉시 항소기로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에서 “폐암·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김모씨 등 5명

이 같은 취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담배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원고들은 장기간 흡연과 폐암이라는 공명점을 갖고 있고, 원고들의 흡연과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제조·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폐암·후두암이 바로 피고의 판매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추출된 특정 요인과 질병 사이의 통계적 관련성이므로,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 제조물책임이나 공해 소송의 경우처럼 원고측

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도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제조물책임 법리를 적용할 제품이 아니며, 이 소송은 공해소송처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이다”며 일반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원고측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는 불충분한 경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은 원·피고측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7년남게 진행됐다.

한편 원고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탈당, 나 때문이라면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盧대통령 신년 회견 “임기 단축 절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연세 탈당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당을 나가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면 제가 당직 정리를 하겠다”며 분당을 막기 위해서는 당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어 “신당하겠다는 사람과도 협상하겠다”며 “그러나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 힘이 없으며 열린우리당 지지가 낫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 된다”며 탈당 자체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전당대회를 통해 내부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면 당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중도통합 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이 중도통합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열린우리당 중심의 대통령직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당 내부의 연세탈당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 이 시기에 잘 이뤄지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안 부결시 임기 단축 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 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지만 임기단축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종립 내각 구성 용의에 대해 “아무도 반갑다고 안 하는 종립내각은 하면 뭐하느냐”며 “거국내각은 대연정과 같은 것이며 거부했으면 그만이다”고 불관한 심기를 토로했다.

한명숙 총리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당 복귀 및 청와대 비서실 개편 여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은 교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내각은)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며, 지금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ROLEX OYSTER PERPETUAL DATEJUST

로렉스 지정 판매점 · 광주 신세계백화점 2F 062-360-1340

전남, 지역발전 전국 ‘꼴찌’

‘삶의 질’도 최하위권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간 발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연구원 지역별 경제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력지수’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민활력지수’를 종합한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25일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발전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전남은 또 주민활력지수도 전국 15위를 기록하면서 경제발전과 삶의 질 모두 전국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전남은 당초 포스코 광양제철과 여천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력 측면에서 강원이나 제주 등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반적인 산업집체로 인해 전북에 이어 꼴찌의 ‘명예’를 안았다. /최경희기자 choice@

지역별 발전지수 순위

순위	지역	발전지수
1	서울	제주
2	울산	충남
3	대전	광주
4	경기	전북
5	광주	대전
6	충남	울산
7	경남	강원
8	경북	경북
9	인천	경남
10	대구	서울
11	부산	충북
12	제주	경기
13	충북	부산
14	강원	대구
15	전북	전남
16	전남	인천

광주는 지역 경제력지수가 5위로 나타나 광역시 가운데 울산,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주민활력지수도 전국 3위에 올라 경제발전과 삶의 질 모두 전남보다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역발전지수에서 1위에 오른 가운데 울산, 대전, 경기 등의 발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발전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산업자원의 역량을 받아 3년간 산업개발, 주거생활, 근로여건, 교육환경 등 10개 분야 29개 지표를 종합해 지역발전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최경희기자 choice@

변호사 개업인사

제 1회 4년 동안 임무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임무기간 동안 변호사로서 활동하다가 이면제 단독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화백 및 약백」 -

- 전남 원천 송선
- 광주 안동초(80년, 20회), 진흥중(83년, 9회), 전남대사대부고(86년, 7회), 원안고 법과대학 법학부(93년, 86학번) 각 졸업
- 2000. 12. 제42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2003. 2. 법무법인 권누리 변호사
- 2003. 10. 변호사 조간사-진용래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년 1월 변호사 진 용 태 올림

법무법인 : 2007. 1. 2. (화)
 개업주소 : 광주 동구 자갈치 709-15 5층 변호사사무소
 개업시간 : 2007. 1. 29. (화) 18:30 ~ 21:00
 대표전화 : 062-226-2080-1 팩스 062-226-2084

동양저축은행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남부대학교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신입생 모집 (528-0097) / 062-360-5000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집중!

http://marathon.kwangju.co.kr / 문의: 062-220-0541